“불교 쇠퇴한 용산, 전통회복·계승 필요”

11월 25일 ‘용산지역 내 불교역사에 대한 고증 세미나’

“해방 후 적산 기독교로 넘어가”
“호국 의승 넋 기리는 시설 필요”
치유 공간으로 재탄생 강조키도

임은호 기자 imeunho@hyunbul.com

“용산은 침략을 자행했던 일본에게는 반성, 한국을 비롯해 침탈 당했던 이들에게는 치유의 공간이 돼야 합니다. 미군정의 친기독 정책으로 쇠퇴한 전통 불교에 대한 추념사업 또한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조계종 총무원(원장 진우)이 11월 25일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용산지역 내 불교문화역사에 대한 고증연구 세미나’를 개최했다. 발제자들은 용산의 역사 변화 속 종교문화의 흐름을 분석하고 해방 당시 미군정의 친기독교 편향으로 인한 불교 쇠퇴에 안타까운 마음을 표했다.

이날 노대환 동국대 교수는 총론 ‘용산지역의 역사적 변화와 문화’에서 종교와 관련한 용산의 가장 큰 변화에 대해 ‘기독교의 약진’이라고 설명했다. 친기독교적인 정권과 미국의 영향력으로 많은 적산이 기독교계에 넘어가면서 용산지역서 기독교가 크게 성장했다는 것이다.

노 교수는 “해방 후 유입된 기독교인들로 인해 교회시설과 기독교계 학교들이 들어섰고 이슬람 사원이 건립되면서 용산은 각종 종교의 핵심 공간으로 자리잡게 됐지만 정작 이곳에 전통 불교의 흔적을 발견하기 힘들게 됐다”면서 이는 “종교기관 재산은 동종기관으로 이관하는 것이 원칙이었지만 일본 불교계의 재산도 기독교계가 접수하는 일이 적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실제, 당시 용산에 존재했던 여러사찰은 불교통제 정책으로 인해 철폐되거나 독서당으로 사용되는 등 피해를 입었다. 미군이 주둔하면서 군사도시로서의 성격을 탈피하지 못했고 친기독교적인 정권과 미국의 영향력으로 많은 적산이 기독교계로 넘어가면서 용산 지역에서 기독교는 크게 성장할 수 있었으나 불교계는 철저히 무시, 정착 한국 전통 불교의 흔적을 차기가 쉽지 않게 됐다.

이 같은 과정은 이후 문혜진 부경대 교수가 발제한 ‘해방 후 적산불하 정책과 불교계 영향’에서도 잘 나타난다. 문혜진 교수의 발제에 따르면 러일 전쟁 이후 용산구 일대에는 신사(神社)와 신사(神祠) 6사, 교파신도 8사, 일본기독교 4사, 일본불교 사원 32사가 창건됐다. 문 교수에 따르면 해방 후 용산 소재 일본불교 사원 중 조선 불교계가 접수한 것은 33.3%에 불과하다. 해방과 함께 일본종교 관련 적산처리 문제에 관해 ‘일본종교재산은 조선의 동등한 종교기관에 이양된다’는 방침이 있었지만 실질적으로 이행되지 않은 것이다.

게다가 용산의 신사 중 규모가 커서 적산재산 추적이 가능한 경성호국 신사와 가토신사 부지에는 기독교계 학교 및 교회가 들어섰다. 그 외 용산 부대 내 위치했던 안산대신궁은 해방 후 미군 용산기지 내에 편입됐다. 이에 동일 종교기관으로의 불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 일본신사의 경우 적산재산으로서의 가치가 있는 규모의 신사는 용산구에 한해 기독교계에 편향적으로 불하되는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

이에 대해 문 교수는 “기독교에 우호적이던 미군정이 한국의 기독교에게 적산재산 처리에 있어서 각종 지원과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기독교가 한국 현대사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미치는 종교로 급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 주는 계기가 됐다”고 설명했다.



조계종 총무원은 11월 25일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용산지역 내 불교문화역사에 대한 고증연구 세미나’를 개최했다.

발제에서 문 교수는 용산불교 전통 회복과 계승을 위한 제언도 잊지 않았다. 용산공원 혹은 용산지역 어딘가에 호국의승들의 숭고한 넋을 기리기 위한 추념시설을 설립해 달라는 것. 문 교수는 “임진왜란 시기 활동한 의승들은 우리 역사의 의인이자 위인으로서의 위상을 지닌다”면서 “이들을 추모하고 선양하는 추념사업은 불교계뿐 아니라 범국민적 차원에서 전개돼야 한다는 당위성을 지닌다”고 강조했다.

노대환 교수도 “용산은 침략을 자행했던 일본에게는 반성, 한국을 비롯해 침탈 당했던 이들에게는 치유의 공간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 교수는 “용산 지역에 전통 불교를 접목, 개방성이라는 용산의 특성도 살리고 지역의 역사성도 회복하는 방안을 고민해야한다”면서 “이를 통해 용산 지역의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이날 학술대회에서는 △고대 및 고려시대 용산불교의 역사와 문화(고영섭 동국대 불교학과 교수) △조선시대 한양 도성 및 용산의 불교(황인규 동국대 역사교육학과 교수) △근현대, 용산불교 모색의 시론(김광식 前 동국대 특임교수) △용산지역 불교의 호국 전통과 구제행(김상영 前 중앙승가대 교수) △해방 후 적산불하 정책과 불교계 영향(문혜진 부경대 교수) 등의 발표와 토론이 이어졌다.

개회식에서 조계종 문화부장 혜공 스님은 조계종 미래본부 사무국장 여해 스님이 대독한 개회사에서 “100년이 넘는 시간을 거치며 용산 지역 내 존재했던 불교의 역사와 사찰은 물론, 전통문화와 시설 또한 모두 사라져 버렸다”면서 “이런 현실은 우리에게 용산의 역사적, 문화적, 불교적 전통을 계승하고 새롭게 꽃피워야 한다는 과제를 주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세미나를 통해 민족 수난의 땅이자 불교의 호국과 통일의 염원이 서려 있는 용산이 우리의 전통문화를 계승하고 자비와 평화의 불교 정신이 널리 확산시키는 역사적, 문화적, 정신적 공간으로 발돋움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대행 선사가 남긴 ‘육성 전법’ 의미는

대행선연구원, 12월 16일 제17회 계절발표회

묘공당 대행 선사(1927~2012)의 생전 법문들은 녹음·녹화돼 법어집으로 발간됐다. 이 같은 육성 법문과 법어집이 불교 전법적으로 어떤 의미를 살피는 자리가 마련된다.

한마음선원(이사장 혜수) 산하 대행선연구원(원장 혜선)은 12월 16일 오후 1시 30분 한마음선원 안양본원 3층에서 제17회 계절발표회를 개최한다.

이날 계절 발표회에서는 동국대 불교학부 교수 정완 스님이 ‘참회와 회과를 통해 본 중국불교’를, 최원섭 대행선연구원 연구원이 ‘묘공대행의 육성(肉聲) 전법’을 발표한다. 논평자로는 정선 스님(동국대), 김영진 동국대 WISE캠퍼스 교수, 김은영 동국대 불교학술원 교수, 오진영 대행선연구원 연구원이 참여한다.

또한 지난 14회 계절발표회부터 시작된 한마음선원 지원·단체 소개는 한마음선원 통영지원이 소개된다. 발표는 통영지원장 혜연 스님이 맡는다.

대행선연구원은 “최원섭 연구원의 ‘묘공대행의 육성(肉聲) 전법’은 대행선사의 법어집과 육성 법문이 시공을 초월해 직접 듣는 역할을 하고, 전법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를 살핀다. 또한 정완 스님의 ‘참회와 회과를 통해 본 중국불교’는 중국불교에서 재난을 막는 주술로 참회법을 행했음을 조명한다”면서 “대행 선사의 사상과 다양한 불교학 주제를 만날 수 있는 이번 발표회에 많은 관심을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계절발표회에는 한마음선원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된다. 발표 자료집도 대행선연구원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신중일 기자

여성불자회 송년수계산림 템플스테이

11월 25~26일, 은해사 일원서
백흥암 순례 등으로 신심 다져

조계종 전국여성불자회(회장 김의정)는 11월 25~26일 1박 2일 동안 제10교구본사 은해사와 팔공산 갓바위 일대에서 ‘송년수계산림 템플스테이’를 진행했다. 이번 행사는 각자 단위의 한 해 활동을 정리하고 새해 여성불자회의 활동 방향 점검, 템플스테이와 수계의식을 통해 불자로서의 정체성과 자긍심을 고취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준비됐다.

16개 교구 및 사찰 대의원, 13개 직능단체 대표 회원 총 120여 명이 참석한 이번 템플스테이는 입재식을 시작으로 백흥암 순례, 팔공산 갓바위 새벽예불, 수계산림법회로 진행됐다. 김의정 회장은 이연화 수석부회장이 대독한 인사말을 통해 “함께 만나고 이야기하며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인가를 고민하는 시간은 조직을 키워내는데 가장 중요한 과정이며, 그 시간의 깊이와 무게가 깊어져야 우리의 역사가 만들어질 수 있다”면서 “한국불교 1700년이 이어온 역사는 우리 여성불자들이 변화되는 환경에서도 가정과 사찰에서 굳건하게 자리를 지켜온 뚝심의 결과다. 각자 그 내공의 뚝심을 끌어낼 수 있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포교원장 선업 스님은 입재법문에서 “‘부처님 법 전합시다’라는 슬로건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을 바로 지금 실천하는 것이 부처님 법 전하는 길이 되고 그 길은 세상을 맑고 향기로운 정토가 이루어질 수 있는 길이라는 의미“라고 강조했다.

입재식 후 2.5km 떨어진 비구니스님들의 수행도량 백흥암을 ‘생명을 살리는 걷기명상’ 프로그램으로 참배하고, 발우공양과 촛불기도정진으로 첫날 일정을 마무리했다.

둘째 날 새벽 3시, 은해사를 출발해 선본사 갓바위에 오른 회원들은 차가운 새벽공기를 맞으며 각자의 서원을 갓바위 부처님께 전하고 모든 이의 안녕을 기원하는 시간을 보냈다. 임은호 기자



전국여성불자회는 11월 25~26일 1박 2일 동안 제10교구본사 은해사와 팔공산 갓바위 일대에서 ‘송년수계산림 템플스테이’를 진행했다.

조계사, 종로구에 김장 6톤 자비나눔

해남군서 배추 4000포기 후원…취약계층에 전달키로

조계사가 김장철을 맞아 소외이웃을 위한 김장 자비나눔에 나섰다.

조계사(주지 원명)는 11월 29일 대웅전 앞마당에서 ‘이웃과 함께 행복한 조계사 김장 나눔전’을 개최했다. 주지 원명 스님과 이승현 신도회장, 정문헌 종로구청장이 동참한 행사에는 조계사 사부대중 200여 명이 함께했다.

김장 나눔전에는 조계사와 도농 교류를 이어오고 있는 해남군에서 배추 8톤에 달하는 약 4000포기를 후원해 의미를 더했다. 조계사는 이 가운데 김장 3000포기를 담아 종로구 각 주민센터를 통해 이웃에게 전달하기로 했다.

조계사 주지 원명 스님은 “오늘 열심히 김장을 담아서 독거어르신들께서 겨울을 잘 보낼 수 있도록 하려 한다. 함께해주신 모든 분들이 맛있게 김장을 담아주시길 부탁드린다”고 인사했다.


(사진 왼쪽부터) 이승현 신도회장, 주지 원명 스님, 정문헌 구청장이 배추에 속을 버무린 뒤 환하게 웃고 있다.

정문헌 구청장은 “조계사가 없는 종로는 상상할 수가 없다. 종로의 핵심 공동체 역할을 조계사가 하고 있다”며 “부처님 법 널리 전하기 위해 스님과 불자님들께서 노력해주셔서 감사하다”고 말했다. 윤호섭 기자

부처님의 고행과 깨달음, 열반에 이르기까지
인도 성지순례 10일
동 참 금 : 269만원~
주 요 일 정 : 녹야원–보드가야–라즈기르–바이샬리–쿠시나가르–룸비니–스라바스티–아그라–델리
체크포인트 : 호텔, 열반당 가사 공양, 인도·네팔 비자 비용 포함, 성지순례구간 한식 요리사, 전 구간 불교 전문 가이드
▶2024년 2월 22일 ~ 2024년 3월 2일
▶2024년 3월 14일 ~ 2024년 3월 23일

인도 성지순례 13일(아잔타 석굴 포함)
동 참 금 : 320만원~
주 요 일 정 : 델리–오랑가바드–아잔타 석굴–엘로라 석굴–산치 대탑–아그라–기원정사–룸비니–쿠쉬나가르–케사리아–바이샬리–나란다–죽림정사–영축산–보드가야–녹야원

인도양의 진주
스리랑카 순례 6일
주 요 일 정 : 아누라다푸라–미힌탈레–시기리야–폴론나루와–담불라–캔디 불치사–콜롬보

주요 불교성지와 아름다운 자연 경관, 액티비티 체험까지 多!
라오스 성지순례 5일
동 참 금 : 149만원~
주 요 일 정 : 탓루앙–탁발 행렬 참관–꽝시 폭포–왓씨엥통–탐쌍/탐남동굴
체크포인트 : 특급호텔, 롱테일 보트 체험, 블루라군, 전신마사지 2시간
▶ 2024년 1월 12일 ~2024년 1월 16일 모객완료
▶ 2024년 1월 17일 ~2024년 1월 21일 모객완료

불광산사 등 대표순례지와 자연과 문화, 휴식까지
대만 완벽 순례 5일
동 참 금 : 169만원~
주 요 일 정 : 불광사–불타기념관–중태선사–자제공덕회–태로각협곡–법고산사–자항사
▶2024년 1월 16일 ~ 2024년 1월 20일 모객완료
▶2024년 2월 25일 ~ 2024년 2월 29일
▶2024년 3월 14일 ~ 2024년 3월 18일

세계 3대 불교유적지 보로부두르 사원
족자카르타 보로부두르 성지순례 5일
주 요 일 정 : 자카르타–족자카르타–보로부두르 사원–프람바난 사원–머라피 화산

중국 4대 불산
– 관세음보살의 상주처 보타·낙가산
– 지장보살의 상주처 구화산
– 보현보살의 상주처 아미산
– 문수보살의 상주처 오대산


예약·상담 02-365-7747
www.mahayeon.com
성지순례자의 도반
마하연투어